

내가 보고 싶은 얼굴

충남 원당초등학교

3학년 김아인

나는 충남 당진에서 살고 있다.

우리 가족은 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빠의 고향인 당진으로 이사를 왔다.

당진에는 농사짓는 친할머니. 할아버지도 살고 계시고 친척들도 아주 많다.

내가 살고 있는 당진은 조금만 눈을 돌려도 넓고 푸른 바다를 쉽게 볼 수 있고

여름 밤에는 개구리들의 힘찬 합창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곳이다.

그래서 나는 당진이 참 좋다.

일부러 찾아 다니지 않아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자연이 내 곁에 친구처럼 있어 주기 때문이다.

하지만 요즘에는 미세먼지와 갑자기 많이 생겨난 공장들이 내뿜는 연기 때문에 뿌연 하늘을 볼 때가 많은데 아빠가 들려주는 어릴 적 당진은 매일 밤, 수 천 개의 별들도 볼 수 있고 산에 가면 토끼, 노루 등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.

그런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느새 내 마음은 새들이 지저귀는 상쾌한 산도 되고 넓고 조용한 잔잔한 바다가 되기도 한다.

2018년 6월,

내가 아홉 살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.

도란도란 엄마 아빠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근처에 살고 계신 할머니께 전화가 걸려왔다.

“여기는 지금 난리도 아니여. 시상에나. 이게 도대체 왜 여기로 온 거여!!”

며칠 전, ‘라돈’이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침대 매트리스를 어떤 회사가 판매했다는 뉴스를 본

적이 있다.

엄마는 너무 충격적이라며 마음이 싱숭생숭하다고 하셨다.

엄마뿐만이 아니었다.

학교에 가도 학원을 가도 선생님, 친구들 모두 매트리스 얘기만 했다.

그런데 그 라돈 매트리스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, 당진으로 실려 왔다니...

매일 밤, 아빠가 들려주던 내 마음속 아름다운 동화 같은 당진 하늘에는

이제 곧 매트리스를 태우며 생긴 시꺼먼 괴물 같은 연기들이 공기 중에 퍼져 우리 엄마 핸드폰 화면 속 잔뜩 화가 난 빨간 얼굴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겠지.

“딩동. 오늘의 미세먼지는 “최악”입니다. 절대로 외출하지 마세요!”

나에게 요즘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.

운동장에서 마음껏 체육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? 라는 걱정 말이다.

하지만 오늘도 우리 학교 미세먼지 신호등에는 빨간 불이 켜져 있다.

정말 이러다 영원히 밖에서 뛰어 놀지 못할까 봐 덜컥 겁이 났다.

혹시 당진으로 실려온 매트리스 때문일까? 그래서 더 심해졌을까?

비염이 심해 늘 마스크를 쓰는 나의 단짝친구도 미세먼지 신호등을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쉰다.

친구의 한숨 소리는 내 마음속에서 한여름 몰아치는 폭풍 같았다.

“선생님 어릴 적에는 밖에서 참 많이 뛰어 놀았는데...”

언제나 달콤한 사탕 같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쓰게만 느껴졌다.

파란 얼굴, 초록 얼굴, 노란 얼굴, 빨간 얼굴...

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는

자꾸만 자꾸만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다.

특히,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동산에 놀러 가기로 한 날이나

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한 날은 쿵쾅거리는 내 마음이 뿌연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것 같다.

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바꾸는 미세먼지는 우리 엄마도 하루에 몇 번씩 변신하게 만든다.

미세먼지가 활짝 웃는 파란 얼굴을 하면 엄마도 즐겁고, 미세먼지가 잔뜩 화가 난 빨간 얼굴을

하면 엄마의 얼굴도 울긋불긋 단풍잎이 된다.

라돈 매트리스가 당진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지났다고 했다.

그 많은 매트리스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

우리 집 공기청정기도, 학교 미세먼지 신호등도, 엄마의 휴대폰 속 얼굴도

빨간색으로 자주 변하는 것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동네 미세먼지가 많이 나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.

이제 더 이상 빨간 얼굴은 싫다. 검은색 악마 얼굴도 싫다.

그래서 나는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꼭 쓰고 외출 후 손발은 무조건 씻을 것이다.

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실천할 것이다.

보기만 해도 시원한 파란색 활짝 웃고 있는 눈이 하트인 얼굴.

그 하트 눈 속에 어릴 적 아빠와 내가 함께 바닷가에서 함께 노래 부르며

모래놀이도 하고 마음껏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.

나는 그 얼굴만 매일 보며 살고 싶다.